

특집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인프라 투자는 안전 투자요, 복지 투자다

이 승 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woolee@cerik.re.kr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

큰 래 SO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SOC가 충분하다는 인식과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결합하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SOC를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 기반시설에서 삶의 질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선택적인 주변 시설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약 40년에 걸쳐 비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총량적인 지표상에서 인프라의 수준은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 권역에서는 상하수도, 간선도로, 공항 등 일부 핵심 인프라의 양

적 문제는 해소된 측면이 있으며, 지역에서도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하지만 인프라의 급격한 성장은 우리 스스로 과거 대비 현재의 인프라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총량적 차원에서 벗어나 좀 더 세분화된 지역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인프라가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감안한 하수도 설치율에서 서울은 100%인 반면, 충남(48.5%), 전남(48.7%)은 50%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및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표 1〉 생활 인프라 종류 및 인구당 시설 현황 낮은 지역

구분	대상 시설	전국 비교 낮은 지역	
		광역시 및 특별시	도
사회 및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서울, 울산	경남
	어린이집	서울, 부산	전남, 경북, 강원
공원시설	도시공원	대구	경기, 충남
보건의료시설	의료시설	세종	제주
	상급 의료시설	인천, 세종	충남, 경기
문화시설	도서관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경남
	등록 공연관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기타 문화시설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대구	경기
교통시설	주차장	인천, 대구	충남

전통적인 생산 기반 인프라 외에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는 생활형 인프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급속한 인프라 확충 시기에 공급된 많은 인프라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간 불균형

지역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수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거나 지방의 도 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여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수를 감안한 하수도 보급률¹⁾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는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인 반면, 지방의 도 지역은 90% 이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감안한 하수도 설치율의 경우, 서울은 100%를 보인 반면, 충남(48.5%)과 전남(48.7%)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수 설비²⁾는 일부 시도에 집중 설치되어 있다. 면적 기준으로 전남(34.8%), 부산(18.4%), 경기(17.6%) 3개 시도에 전국 방수 설비의 70%가 몰려 있으며, 광주와 대전, 전북은 배수 시설 및 방수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주택 측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공급으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인구 천명당 주택

1) 총인구 중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 인구의 비율로 산정함.

2)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 범람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 시설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

특집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수는 302.1호(2010년)로 어느 정도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지만 지역간 불균형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인구 천명당 주택 수의 경우 가장 높은 전남은 396.5호를 보인 반면 가장 낮은 서울은 257.8호로 두 지역 간의 격차는 약 140호의 차이가 나고 있다.

생활형 인프라 미흡

인프라는 생산 기반 인프라와 생활형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력, 가스, 수도, 도로 및 철도 등 전통적인 생산 기반 인프라 외에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사회 문화 복지시설 등을 생활형 인프라로 지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생활형 인프라 실태를 사회 및 보육 시설, 공원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교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앞의 <표 1>과 같다.

서울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 타 광역 및 특별시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어린이집과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도시공원, 기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상급 의료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였다. 경상남도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그리고 전라북도는 등록 공연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인프라의 노후화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설물의 노후화로서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

은 경제 성장과 함께 1970~90년대 사이 활발히 건설되었다. 따라서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도로, 철도, 교량, 댐, 산업단지,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은 전체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³⁾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이상 된 1·2종 기반시설물은 5년 후에는 2,921개(14.95%) 수준까지 증가하고, 10년 뒤에는 4,211개(21.55%)로 급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국내 산업단지 개발 역사가 50년을 초과하면서 전국에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산업화 초기 개발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국가단지가 28개, 일반단지가 74개 등 총 101개로 전국 산업단지 538개의 1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수는 87.5%에 해당하고, 생산액은 80.4%를 차지해 대부분의 기업과 생산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의 경우에도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파손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수관 총연장 12만 3,311km 중, 설치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내구 연한이 초과된 하수관은 총 4만 1,820km로 전체의 33.9%에 달하고 있다. 상수관의 경우는 총연장 17만 9,159km 중 26.63%에 해당하는 4만 7,714km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의 경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1·2종 시설물은 3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5,388개에 달하는데, 이 중 공동주택·일반 건축물 등을 제외한 교량·터널·항만·댐·절토사면 등 대형 기반시설은 1만 9,543개임. 이 가운데 2014년 3월 말 기준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전체 시설의 9.5%인 1,864개로 조사됨.

에는 20년 이상 지난 상수관 연장의 비중이 30%를 상회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관에 비해 하수관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부산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 연장 비중이 71.3%, 83.6%에 달하고 있으며, 대구와 대전도 60%를 초과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상하수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해 싱크홀 사고가 급증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상하수도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싱크홀 사고가 전국에서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투자는 복지 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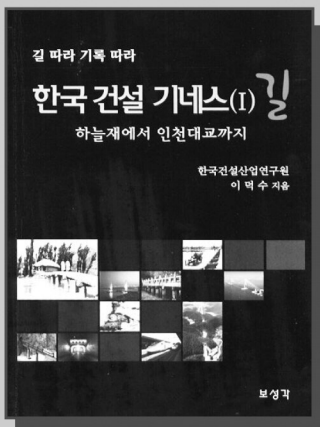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차원에서 인프라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형평의 문제로서 양적 측면에서 핵심 인프라의 지역별 편중이 여전하고, 생활형 인프라에 대한 대처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복지의 문제로서 지역별로 생활형 인프라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간 삶의 질의 차이가 발생하며, 생활형 인프라 부족 지역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안전의 문제로서 고도 성장기에 공급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질적 고도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OC를 복지의 대척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SOC의 지속 투자가 필수 요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SOC 투자도 지역 불균형 해소와 복지 수준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